葉志詵과 19세기 초 한중 문인의 교유

朴香蘭*

1. 서론
2. 葉志詵과 조선 문인의 교유
3. 葉志詵의 二重的 이미지
4. 결론

<국문초록>

19세기 한중 문학 교류의 한 축을 차지하던 翁方綱의 자리는 葉志詵에 의해서 승계된다. 葉東卿은 국적을 넘어 조선 문인과 특수한 인연을 쌓은 보기 드문 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섭지선 연구는 김정희나 김명희 등의 중국관련 연구에서 일부 언급되었을 뿐 따로 집중적인 고찰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 격변기 국적을 넘어 지적 교류를 염원한 문인-섭지선의 자취를 찾고 한중 교유사에서의 섭지선의 핵심적인 역할을 고찰하는 작업은 19세기 한중 문인 교류양상과 사상적 동향을 파악하는 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섭지선과 조선문인의 교유는 시문을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 보다 심화된 인간적인 교류였다. 그는 조선 문인들과 인간적으로 소통하면서 19세기 연행사들과 가장 폭넓은 교류를 한 인물이었다. 금석학에 관한 정보, 서적 구입을 비롯하여 의학정보 등, 일종의 지적인 창구 역할을 한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섭지선을 통해 조선에서 새로운 문화적 기류가 흐르게 되고 한중문인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중국에서 섭지선의 연구가 미진했던 것은 소극적 대항으로 전쟁을 도발시킨 반역자로 지목된 아들의 부정적 영향이 컸을 것이다. 연행록에서

* 廣東外語外貿大學 東方語言文化學院 副教授.

www.kci.go.kr

섭지선의 학술적 경향과 자취를 찾아보는 것은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중국문인의 지위 재규명에도 일조할 수 있는 연구라고 여겨진다.

핵심어: 섭지선, 19세기, 한국, 중국, 문인교유

1. 서론

19세기는 한중 문인의 교류가 전례없이 활발했던 시기로 동아시아 근대화 과정의 추이를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문인, 상인에 이어 그동안 "人臣無外交"라는 조공체제의 명목 하에 몸을 사리던 관리들마저 동아시아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명분을 버리고 필담에 참여한다. 그렇다면 19세기 한중문인들의 상호소통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19세기 문인 교유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葉志詵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금석학자 섭지선에 대해 주목한 것은 한중문인 교유사에서 그의 특수한 공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葉志詵(1779~1863)은 금석학에 조예가 깊어 翁方綱 문하의 제1인자로 불리웠으며 소장한 서적과 彝器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또한 金正喜, 金魯敬을 비롯한 수많은 조선문인들과 폭넓은 교유관계를 유지하며 활발한 문학적 교류를 진행하였고 葉志詵의 글씨가 대량으로 조선에 건너가면서 집집마다 그것을 모사해 붙여놓을 정도로 조선에서는 유명인사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조선에서 이토록 추앙받던 섭지선이 중국에서는 부정적 인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섭지선에게 제2차 아편전쟁 발발기 도학자들을 수십 명 모아 참배를 하여 백성들을 현혹시켰다는 죄목을 씌워 어리석은 도학자로 치부했으며 학계에서도 별로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 동일한 인물에 대한 이토록 상반된 평가는 보기 드문 현상인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여겨진다.

한국에서의 섭지선 연구는 김정희나 김명희 등의 중국관련 연구에서 일부 언급되었을 뿐 따로 집중적인 고찰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섭지선과 한

www.kci.go.kr

국문인의 교유연구는 사실 1930년대 일본의 藤塚鄰[1]이 진행한 교유자료수집에만 그치고 더 이상 본격적인 연구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격변기 국적을 넘어 지적 교류를 염원했던 섭지선의 자취를 찾고 한중 교유사에서의 섭지선의 핵심적인 역할을 고찰하는 작업은 19세기 한중 문인 교류양상과 사상적 동향을 파악하는 극히 중요한 작업일 뿐만 아니라 중국사에서의 섭지선의 지위 재규명에도 일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2. 葉志詵과 조선 문인의 교유

葉志詵(1779~1863)은 호가 東卿이고 湖北省 漢陽 사람이다. 중국에서는 藏書家로 알려진 인물이며 서법에 능한 문인이다. 부친 葉繼雯 때부터 상당한 규모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고 嘉慶 9년(1804)에 한림원에 나아가 國子監典薄를 맡았으며 관직은 兵部武選司郎中까지 오르고 퇴직한 후 고향으로 돌아간다. 벼슬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학식이 풍부하고 金石學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고증학자로 이름이 높았던 翁方綱(1733~1818) 문하의 제1인자이자 사위였다.[2] 저서로는 『詠古錄』, 『識字錄』, 『金山鼎考』, 『壽年錄』, 『上第錄』, 『稽古錄』, 『神農本草傳』, 『平安館詩文集』, 『簡學齋文集』, 그리고 『高麗碑全文四冊』이 있다. 섭지선의 장서는 엄청났는데 藏書樓만 해도 "簡學齋", "平安館", "怡怡書堂", "蘭花堂", "二壘軒", "二百蘭亭齋" 이 있었고 그중 북경 琉璃廠 寶名齋 주인 李炳勳이 장서 백 상자를 구입해 갔다고 한다.[3]

섭지선 본인은 관직이 병부무선사낭중에 그쳤지만 그의 아들 葉名琛(1807~1859)은 중국사에서 제2차 아편전쟁 발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葉名琛은 시문이 출중하여 18세가 되기 전에 貢生에 합격

1) 藤塚鄰 저, 박희영 역, 『추사 金正喜의 또다른 얼굴』, 서울:아카데미하우스, 1994. 이 책은 1935년 藤塚鄰이 작성한 박사학위논문이다.
2) 徐慶淳, 상게서, "余曰, 葉志詵, 翁覃溪之婿也. 筆蹟之東來, 殆家橅而戶帖, 東人視若同域之人.".
3) 李玉安・黃正雨, 『中國藏書家通典』, 北京: 中國國際文化出版社, 2005, 30면.

www.kci.go.kr

하고 1935년에 진사가 되었으며 한림원편수에 올라 40세 전에 廣東巡撫가 되었다. 이토록 어린 시절에 공생에 합격하고 관직에 빨리 오른 인물은 실로 드문 바 부친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그 뒤 兩廣總督겸 通商大臣이 되어 외교를 담당하면서 청조의 유명한 疆臣(청대 총독, 순무 등 지방의 고급 관료인 봉강대리의 약칭)으로서 광동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고 이웃 지역에 군량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수많은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외국의 조약개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애로호 사건에 대한 영국의 항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자 그 구실로 영국은 제2차 아편전쟁을 도발하였으며 결국 그는 영불 연합군에게 붙잡혀 캘커타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굶어 죽는다.[4] 섭명침은 청조말기 서양침입자와의 항전에서 희생한 관직이 가장 높은 인물이다. 그동안 중국사에서는 섭명침의 외교실책을 제2차 아편전쟁 발발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하면서 섭명침은 우매하고 교만한 봉건관리의 전형으로 낙인 찍혔으며 심지어 광동지역에는 “싸우지도 않고 화친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으며, 죽지도 않고 투항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았다.(不戰不和不守, 不死不降不走)”는 섭명침을 조롱하는 동요까지 전해졌다.

동아시아 격변기 葉名琛의 특수한 신분을 고려해볼 때 섭씨 집안과 조선 문인과의 교유는 단순한 우정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세기 한중교류사에서의 핵심인물이었던 葉志詵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葉志詵과 조선문인과의 연분은 그의 장인 翁方綱과 金正喜의 우정으로부터 시작된다.[5]金正喜는 중국의 그 어떤 瑰景과 偉觀도 옹방강과 만나본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는데[6] 두 거장의 세기의 만남을 계기로 洪良厚, 李肇源, 申緯, 申在植, 朴綺壽, 李裕元, 丁若鏞, 趙秀三, 李尙迪 등 수많은 조선문인과 옹방강 문하 제자들이 교유를 진행한다. 葉志詵은 비록 金正喜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그가 秋史 金正喜에게 쏟은 정성은 여러 知

4) 임종욱, 『중국역대 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5) 申在植, 『筆談』, 威海:山東大學韓國文化硏究所, 2004, 원문 8면, “余問東卿曰, 秋史之最親於先生, 因其同與翁覃溪有深契而然耶. 曰然.”.
6) 金正喜, 『阮堂全集』第十卷, <送紫霞入燕>, “紫霞前輩, 涉萬里入中國, 瑰景偉觀, 吾不如其千萬億, 而不如見一蘇齋老人也.”.

www.kci.go.kr

友들 중에서 가장 지극했고 전후 10여 년간 보낸 文籍과 拓本・器物은 수백 점에 이르렀으며 이는 추사가 청조문화를 흡수함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7] 葉志詵은 늘 金正喜를 비롯한 조선문인들을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보냈고[8] 金正喜 또한 葉志詵이 보낸 예서를 친분이 있는 문인들에게 부쳐 보내 평가를 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 葉志詵의 명망은 점차 조선에 알려졌다.[9] 洪大容과의 인연으로 시작된 朴趾源, 李德懋, 朴齊家, 柳得恭 등과 중국 문인 사이 교류에서 중간역할을 한 것이 三河 孫容洲였다면 19세기 연행사들에게 있어 葉志詵이 孫容洲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조선문인들은 그 전부터 섭지선의 명성을 익히 알고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였고 만나서 필담을 나누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다. 수많은 문인들이 귀국한 후 문집에서 葉志詵과 그의 아들을 소개하였으며 수많은 懷友詩를 남겼다. 조선문사들은 섭지선이 예서와 고증학에 능하고 蘇東坡를 종주로 삼고 있으며 박식하기로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마저 학문에 조예가 깊다고 하였다.[10] 丁若鏞은 섭지선이 太極圖, 易九圖, 『皇極經世書』, 五行說 같은 것들은 모두 명백히 분석한다면서 그의 박식은 毛奇齡에 못지 않으며 정밀하게 연구한 점은 그보다 낫다고 극찬하였다.[11] 葉志詵의 글씨가 대량으로 조선에 건너오면서 집집마다 모사해 붙여놓을 정도였고 조선 문인에게 있어 葉志詵은 같은 나라 사람마냥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하니[12] 당시

---

7) 藤塚鄰 저, 박희영 역, 『추사 金正喜의 또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296~312면.

8) 『尺牘藏弆集』에 실린 섭지선의 척독에 의하면 추사의 글씨를 얻고 싶어 直屛 여러 폭을 보내어 부모님의 칠순생신 선물로 金正喜 일가와 조선 인사들이 병풍에 글씨를 써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천금매, 「18~19세기 조청문인 교류척독 연구」,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1, 153면 참조)

9) 金正喜, 『阮堂先生全集』卷四, <與吳進士[九]>, <與金東籬>, "適又得葉志詵隸字一幅, 玆以寄上, 亦頗可觀. 譬之對聯稍遜, 聯是其得意者耶. 吾輩有先入而然耶, 未可知也. 第覽正如何, 姑不宣.".

10) 趙秀三, 『秋齋集』卷之五, 詩, "葉志詵主事(志詵)憶昔逢君妙少姿, 看今鬚髮白如絲. 覃門衣鉢傳高弟, 漢隸弓裘有寧兒.(東卿有子二人能傳家學) 寶釰曾酬天下士, 名泉歲集海東詩. 虎坊橋下縱橫轍, 政是高麗乞畵時."; 李尙迪, 『恩誦堂集詩』卷三. "葉志詵(志詵), 葉公宅易知, 竹垞舊所寓. 餉我午泉茗, 索我午泉句. 金馬玉堂語, 期許慚寒素. 葉琨臣(名琛), 琨臣美如玉, 天然寡笑言. 日校天祿書, 鳴珂趨鶯鶩. 秋風好相訪, 報捷喜在門. 葉潤臣(名澧), 愛士葉公子, 把臂竹林中. 詩思滿竹林, 竹林多淸風. 別來詩更好, 竹翠正捎空.".

11) 丁若鏞, 『茶山詩文集』第二十一卷, <示二兒>, "翁覃溪經說, 略見一二, 頗似疏闊. 其徒葉志詵, 爲學亦主考據, 如太極圖, 易九圖, 皇極經世書, 五行說, 皆剖析明白. 蓋其淹博不在毛西河之下, 而精硏則過之矣.".

www.kci.go.kr

葉志詵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섭지선의 위상은 조선에 전파된 그의 서예, 금석학, 고증학적 소양에서 비롯된다. 金正喜와 翁方綱의 교유가 조선의 금석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 수용과정에서 金正喜는 금석학을 조선화시켜 갔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翁方綱과 김정희의 만남을 계기로 조선은 19세기 들어 갑작스레 慕蘇열풍과 금석학에 대한 연구가 고조되는데 이는 당시의 보편적인 문예사조라기보다는 옹방강의 東坡癖에서 비롯된 것이다. 옹방강은 우연히 소동파 친필과 송판 소동파 詩注을 구득하면서 소동파와 인연을 맺게 되자 그 우연한 계기로 자신의 동료와 제자들에게 소동파의 생일날 제사를 함께 올리는 동파제를 해마다 개최함으로써, 이 모임이 연경학계에 소동파 붐을 일으킨다.[13] 조선문인들은 중국 지식인들과의 서찰과 문물교환을 통해 학문적 교유를 지속하고 그 과정에서 금석학과 고증학 방면의 새 기축을 열었다. 이를 계기로 금석문 수집의 열풍이 일기 시작하고 섭지선 역시 조선의 금석문 수집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으며 『高麗碑全文四冊』을 남기기까지 한다. 섭지선이 이 저서를 남길 수 있었던 것도 金正喜 등 조선문인들이 古碑拓本을 寄贈한 덕분이었다. 김정희와 신위 등 조선 지식인들에게 있어 모소열풍은 자신들이 연경 학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자부를 표상하는 행위로 작동했다.[14]

금석학에 관심이 많았던 조선 문인들, 특히 李裕元은 葉志詵의 금석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1845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연행을 한 이유원은 스승 朴綺壽(1774~1849)와 이미 인맥이 있었던 葉志詵과 교류를 가진다. 그가 『西淸古鑑』, 『積古齋鍾鼎彝器款識』와 같은 중국 근세의 명저를 취사하여 재편집한 「金薤石墨編」에는 섭지선이 금석문에 대해 해석하고 소장, 탁본했다는 내용들이 제법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섭지선과 서법을 논한 기록도 있다.

12) 徐慶淳, 『夢經堂日史編三』,<日下賸墨 十二月初七日>, "余曰, 葉志詵, 翁覃溪之婿也. 筆蹟之東來, 殆家櫜而戶帖, 東人視若同域之人.".

13) 조선에서의 慕蘇 열풍에 대해서는 정민의 「19세기 동아시아의 慕蘇 열풍」(『韓國漢文學硏究』 제49집, 한국한문학연구회, 2012)에서 논의되었다.

14) 위의 글, 426면.

www.kci.go.kr

내가 연경의 회관에서 葉志詵을 만나 함께 예서의 書法에 관하여 논란을 하였는데, 동경이 나에게 이르기를, "대체로 예서는 塗鴉를 하기가 쉬운 법인데, 그대의 글씨는 능히 一筆에 써 내고 拘束하는 態가 없으니, 이것이 진실로 남보다 뛰어난 점이오." 하였다. 이어 "덕 있는 사람은 임금의 은혜를 해바라기처럼 하고, 노년의 즐거움을 만끽하네.[有道在葵藿 所樂於桑榆]"라는 글귀를 聯軸에 써 달라고 청하기에 내가 예서로 그것을 써 주었는데, 그가 좋아한 서체이기 때문이었다.15)

섭지선이 칭찬한 것은 이유원의 필체가 塗鴉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예에 능한 섭지선이 예서를 부탁한 일은 이유원의 자부심을 자극시켰다. 「華東玉糝編・貞珉之稱」에 섭지선의 칭찬을 재차 언급한 것을 보더라도 이유원이 섭지선의 평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섭지선과 조선문인의 교유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1821년 조선에서 유행된 怪疾에 대해 섭지선의 처방을 얻었다는 기록 또한 흥미롭다.

근래에 유행하였던 麻脚瘟에는 북경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처방이 있다. 道光원년 辛巳가을, 白露秋分사이 이 병이 유행하여 열흘내에 평양에 죽은 자가 수만 명이었고 도성 五部에는 13만명이나 죽었다. 서리가 내린 후 점차 줄어들기는 하였는데 그 증상은 攪腸痧나 轉筋霍亂과 비슷했고 치료법을 몰랐다. 그해 겨울, 섭지선이 유리창각본 처방을 보내 주었는데 병명을 '硃砂疔' 혹은 '心經疔', '麻脚瘟'이라 불렀다.16)

1821년, 치료법을 알 수 없는 怪疾(콜레라로 추정)에 의해 關西 平壤府에서 수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王都 五部에서 13만 명이 사망하였다. 그해 겨울 茶山 丁若鏞이 평소 의학에 관심이 많아 『神農本草傳』을 남겼던 葉志詵에게서 처방을 얻었는데, 병명을 '硃砂疔' 혹은 '心經疔', '麻脚瘟'이라 불렀다. 처방에는 病名과 함께 자세한 처방과 치료법도 소개하고 있다. 그 처

15) 李裕元, 『林下日記』 제25권, <春明逸史・葉志詵論隸>, 고전번역원 김동주 역, 2000.
16) 丁若鏞, 『與猶堂全書』第五集 政法集第十八卷, 牧民心書卷三, <愛民六條・寬疾>, "近所行麻脚之瘟, 亦有新方, 自燕京來. 道光元年辛巳之秋, 自白露秋分, 此病流行, 旬日之內, 平壤死者數萬人, 都城五部死者十三萬人. 霜降以後漸熄, 其症或似攪腸痧, 或似轉筋霍亂, 未詳治法. 是年冬, 葉志詵寄琉璃廠刻本藥方, 玆錄于左, 治時行瘟疫方, 硃砂症, 一名心經疔, 一名麻脚瘟.…".

방은 다시 여러 의원들에게 전해졌고 李圭景도 이때부터 硃砂疔에 관한 처방을 두루 모으기 시작하여 훗날『霍痧會要』라는 책을 묶는다.[17] 아쉽게도 현재 이 책은 전하지 않는 듯하나 질병의 치료에 일조했던 섭지선의 공헌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섭지선과 조선문인과의 만남은 1840년대 중반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쪽의 비적 때문에 조정에서 외국인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 徐慶淳도 葉志詵의 저택까지 찾아가지만 결국 만나보지 못하여 아쉬움을 토로하였다.[18] 물론 1845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연행을 한 李裕元과의 교유를 봐서는 만남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전시기보다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섭씨 가문과 조선문인의 교유는 섭지선에서 끝나지 않고 서찰로나마 次子 葉名澧(1811~1859)에 의해서 전승된다.[19]

3. 葉志詵의 二重的 이미지

섭지선과 조선문인의 교유는 申在植의『筆談』[20]에서도 확인된다. 사실『筆談』에 기재된 섭지선의 필담분량은 얼마 안 되며 신재식과 깊은 대화도 나누지 않는다.『필담』속의 섭지선은 말수는 적지만 유머를 잘하고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인다. 신재식이 필담담초를 책으로 엮어 후세에 전하겠다는 말에, 못 지어올 경우 벌주를 주자고 제의하기도 하였고[21] 平安館의 모임에서 顔丹泉(山東曲阜 사람)이 벽을 향하여 묵묵히 앉아 있어 신재식

17)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 <醫藥·瘡瘡本原辨證說>.
18) 徐慶淳, 전게서, "十年前, 我使之入都, 都中人士多有逢迎會集, 自南匪以後, 外藩人交通, 邦禁至嚴, 非但到處阻閽, 並與赫蹄而不相往. 曾有雅契者, 約會於蓼局, 暫時立談.".
19) 金永爵의『邵亭詩稿』와『邵亭文稿』속에는 청조 문인 葉名澧, 張丙炎, 吳昆田에게 보낸 시와 葉名澧의 제문이 수록되어 있다. 또 金永爵과 청조 문사들이 주고받은 시문을 수록한『燕臺瓊瓜錄』이 있어 北京에서 교유한 인물을 확인할 수 있다.
20)『筆談』은 1826년 동지부사로 연경에 다녀온 翠微 申在植이 중국의 문사들과 필담을 나눈 회우록으로서 홍대용의 <乾淨衕筆談>과 박지원의 <粟齋筆談>, <鵠汀筆談>, <商樓筆談>에 이은 독립적 텍스트로서의 필담집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21) 申在植, 상게서, 원문 18면, "余曰, 今日筆談草紙, 僕將盡爲持去東歸後, 撮其大槩裒成一錄, 以傳今日證交於後世也.……東卿曰, 如不成當罰用金谷.".

www.kci.go.kr

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하자 섭지선은 또 "선생도 뭐 듣는 게 있느냐? 손 밑에서 낙엽 쓰는 소리만 난다."고 하여 좌중을 웃기기도 하였다.[22]

평안관에서의 필담에는 汪甘泉, 李月汀이 신재식과 나눈 漢學·宋學에 대한 학술논쟁 등 제법 의미심장한 화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섭지선은 학술논쟁에는 시종일관 침묵을 유지하고 다분히 일상적인 필담만 유지한다. 그는 제일 먼저 金魯敬과 金正喜의 안부를 묻고 서찰을 전해 받고서 기쁨을 금치 못하였으며[23] 이어 子午泉詩帖을 보여주고 作詩를 청한다.

子午泉은 섭지선의 집에 있던 신비한 샘물이다. 이 집은 원래 18세기 조선 문인과 교유가 깊었던 紀昀(1723~1805)의 옛집으로서 역시 조선인과 남다른 인연이 있는 곳이었다.[24] '子午泉'은 평소에는 맛이 짜다가 오직 子初, 午正 두 시간만 맑은 물줄기가 솟아나서 특이하게 달고 시원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섭지선은 平安館을 방문하는 문인들에게 필수코스로 자오천을 관람시키고 시를 지어달라고 청하였는데[25] 그 중에는 金正喜, 申緯, 鄭元容, 李尙迪, 姜浚欽 등 중국을 다녀온 수많은 문인들의 시가 포함되었다. 시첩의 반은 조선문사의 시였다고 하니 섭지선이 조선문인들의 친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추측할 만하다.

신재식과의 필담에도 섭지선은 김정희 부자의 안부를 묻고 바로 자오천 시첩을 보여 준다. 이 시첩은 섭지선이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왔던 李肇源(1758~1832)에게 부탁하여 구한 조선 사람들의 題詠과 매년 사신들이 지은 "子午泉" 시를 모아 작성한 것으로[26] 자오천시첩에 쏟은 섭지선의 열정은 남달랐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손님이 스스로 자오천을 보

22) 申在植, 상게서, 원문 17면, "余斆之曰, 丹泉向隅不言, 使人不樂.……東卿大笑曰, 尊音亦何嘗有聞耶, 但陛下有掃葉聲耳.".

23) 申在植, 상게서, 원문 7면, "東卿曰, 酉堂父子俱平安. 月汀曰, 酉堂現居禮部云, 稍得暇否. 秋史, 山泉近居何識. 余曰, 酉堂近居東宮賓客, 秋史依前閣職, 山泉方居桂坊, 亦是東宮官. 來時見其平安而, 酉堂牘章書在便面見方袖來矣. 仍出示之, 諸公輪看稱好.".

24) 기윤과 조선 문인과의 학술교류는 진재교의 「18세기 조선조와 청조 학인의 학술교류-홍량호와 기윤을 중심으로」(『고전문학연구』제23집, 고전문학연구회, 2003)에서 논의되었다.

25) 趙秀三, 상게서, 詩<葉志詵主事 二首>, "每歲行人詩一篇, 帖中名氏半朝鮮. 我來大醉逢投轄, 快漱君家子午泉.遠學中郎近學蘇, 覃門衣鉢見高徒. 佳兒亦復承庭訓, 東國新傳摘句圖.".

26) 申在植, 상게서, 7~8면, "此屋傍有子午泉, 東國學士皆有題詠. 仍出示一帖詩篇, 盖多東邦文人所製. 東卿曰, 此冊李玉壺丈來見, 後東歸搜輯若干, 而餘則每年奉使來者續詠耳.".

고 감탄하여 시를 읊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섭지선의 요구에 의해 시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또한 신재식과 필담은 얼마 안 나누었지만 談草를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겠다고 하자 못 만들면 罰酒를 주어야 한다고 제의할 정도로 『필담』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신재식의 필담에서 한학과 송학에 대한 섭지선의 견해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의 스승인 옹방강의 주장을 짚어보면 어느 정도 그의 학술동향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건륭, 가경시기 한학이 유행될 때 많은 학자들은 경전의 문자와 훈고에만 힘쓰고 義理는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송학과 차이를 두었다. 하지만 옹방강은 한학과 송학을 엄밀히 구분하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취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김정희에게도 줄곧 송학, 한학을 절충할 것을 권하면서 程朱理學을 존숭하되 훈고와 고증을 중시하고 고증은 의리를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7] 이러한 옹방강의 학술경향은 제자인 섭지선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학술논쟁을 피했던 것은 한학과 송학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절충주의의 표현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럼 섭동경은 왜 필담과 교유시에 이토록 집착을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섭지선이 교유의 목적을 인간적인 친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친분을 중시했음은 조선인들에게 아낌없이 선물을 준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필담』에서도 대부분 문인들이 신재식에게 시를 지어 준 반면, 섭지선은 對聯, 橫聯, 자기가 새긴 도장, 龍尾硯 벼루 등 선물을 준다. 조선에서 섭지선이 인기가 있었던 것 역시 장서와 골동품에 취미를 갖고 있었던 조선의 문화풍조와도 무관하지 않다. 南公轍은 당시 조선문인들의 취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사람들은 외물에 대해 모두 癖이 있다. 벽이란 것은 병이다. 그러나 군자가 종신토록 사모하는 것은 그것이 지극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古玉 , 古銅, 鼎彝, 筆山, 硯石은 세상에서 모두 완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淸賞하는 사람이 그것을 만난다면 한번 어루만지면 그만이다. 珠璣, 錢貨 등 이익이 있는

27) 翁方綱, 『翁方綱跋手札集錄』, <致金正喜札>. (賴貴三, 「考古證今, 山海崇深－韓儒 金正喜와 翁方綱、阮元의 서예, 경학교류」, 『고전문학지식』175집, 鳳凰出版社, 2014, 80~81면 참조.)

곳이라면 사람들은 천리를 발이 부르트도록 찾아간다. 그것을 구할 때면 산을 헤매고 바다에 뛰어들고 무덤을 파고 관을 쪼개며 스스로 몸을 가볍게 여기고 죽음과 삶을 넘나든다. 그러나 충족되고 난 다음에는 禍가 있다. 취하고도 끊임이 없는 것은 오로지 서책일 뿐이로다.28)

조선후기 경화세족들 사이에 골동과 서화를 소장하고 감상하는 취미가 형성되면서 중국문인의 고동서화를 얻는 것은 일종의 생활문화로 정착하였다. 이와 동시에 왕조체제를 유지했던 관료와 과거제도는 경쟁이 격화되면서 관료체계에서 소외된 지식인층 사이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상적이고 탐미적이고 개별적인 감각과 심미관이 부상하고 있었다. 섭지선에 부여된 조선의 명성 또한 이러한 사회문화적 현실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현상은 중국과 조선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고 19세기 청조에 장서가, 고증학가, 금석학가들이 대량으로 출현한 것도 당시 정세와 무관하지 않다. 조선문인과 오랜 시간 동안 교유를 이어왔던 섭지선은 조선의 이러한 풍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듯 만나는 연행사들에게 아낌없이 선물을 증여했던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대화를 꺼리고 마음 맞는 문인과의 우정을 쌓으려 한 태도는 일부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1822년 金善臣과 섭지선의 만남은 그다지 기분좋은 만남은 아니었다.

葉志詵은 淸山에게 말하기를 "작년 귀국의 권씨 성을 쓰는 사람이 여기에 왔었는데, 그와 필담을 하던 중에 본조의 문제가 화제가 되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불쾌해져서 담화를 멈추었다. 그 후 나는 귀국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졌다."고 하였다. 섭씨의 이 말이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이라면 실로 범용하고 비천하다. 어찌 한인들 앞에서 기휘하는 질문을 하겠는가? 밖으로는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알면 될 것이지. 오늘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있는 것이며 마음 깊이 싫어하는 기분이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섭지선을 본 적이 있는데 비록 얼굴 생김새도 괜찮고 머리도 좋아보였지만

28) 南公轍, 『金陵集』第四卷, <戶曹參判元公墓志銘>, 국학자료원, 1990, 284면, "人之於物皆有癖. 癖者, 病也. 然, 君子有終身而慕之者也, 以其有至樂也. 今夫古玉古銅開彝筆山硯石, 世皆爲玩好,然淸賞之過之,適一摩挲而盡矣. 珠璣錢貨利之所在, 蘭足千里,方其求知也, 採山入海, 破塚剖棺,自以輕身與死生,而及其旣足而有禍,取之而無盡者,其惟書乎.".

경박하기 짝이 없고 결코 중후한 군자는 아니다. 국자감의 정원조교가 된 지 10년이 되어도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29]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파악은 연행사들에게 있어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였다. 문제는 전통적인 조공체제의 절차와 관계를 따를 경우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서의 변화는 물론 일본 및 서양세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연행사가 접촉하는 것은 대부분 한인관료들뿐이고 그들 역시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필담을 나누더라도 숨은 뜻은 파악하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필담에서의 정치적 담론은 18세기부터 줄곧 중국문인들의 반감을 사는 화제였다. 그리하여 洪大容은 중국문인들과 관계가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時諱에 저촉되는 문제들을 직설적으로 묻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된다고 지적하였고[30] 박지원 역시 이국의 실정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한조각 돌덩이로 천하의 대세를 엿보는 것"[31], 즉 迂回와 誘導의 담화법, 그리고 세심한 관찰과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文外之意를 포착할 것을 강조하였다. 섭지선이 권씨의 화제를 이끌어낸 것 역시 필담에서의 현실문제담론을 미리 회피하기 위한 의도였다. 조선문인과 밀접한 교유를 이어왔던 섭지선이었지만 초면에 청조문제를 묻는 것은 기분이 언짢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 한마디로 金善臣은 바로 섭지선을 범용하고 비천한 인간이라면서 마음속으로 조선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섭지선을 경박하기 짝이 없고 중후한 군자가 아니라며 10년이 되어도 승진을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한다.

1830년 姜時永의 연행록에 기록된 섭지선의 모습 또한 우호적이지 못하

29) 撰者未詳, 『燕行雜錄』, 內篇, 日記, 道光7년 정월 25일, "葉志詵嘗謂淸山曰, 年前, 貴國有權姓人來此, 與之筆談, 語及本朝, 滿座皆不樂而罷. 自其後, 不欲見貴國人. 葉之此說若謹慥而實未免庸卑, 渠以漢人當其時, 設聞忌諱之說, 外靡之而內許之可也. 今對我人輒說其事, 顯有深惡眞諱之意, 足爲一慨. 嘗見葉志詵, 面貌雖端晳, 輕佻殊甚, 決非重厚君子. 爲國子監額外助敎,十年不遷.".

30) 洪大容, 『湛軒書』外集 卷二, <乾淨衕筆談>, "潘生首尾執筆, 朝廷、官方、西湖故蹟, 其他數千里外事, 下筆成文, 無有不會. 語及衣冠及前朝事, 副使故爲迫問, 多犯時諱, 難於應酬而不慌不忙, 言言贊揚本朝而間以戲笑, 無半點虧漏, 而言外之意, 自不可掩. 則其事理當然, 而頃刻立談之間, 周旋盖覆之狀, 亦奇才也.".

31) 朴趾源, 『燕巖集』卷之十三 別集, <熱河日記・黃敎問答>.

www.kci.go.kr

다. 강시영은 섭지선을 “수염도 머리도 희지 않고 용모는 둥글고 편안해 보이지만 별로 문아의 기품은 없다”고 하였다. 우연히 문장과 문필이 뛰어난 劉鳳浩에 대해서 섭지선에게 문의했는데 “확실히 유명하긴 하지만 술 탓에 오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죄를 입고 삭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대답했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은 물리치는 인물”이라고 평가한다.[32]

연행사들의 시선에 비친 부정적인 이미지를 종합해보면 섭지선은 청조 현실담론을 꺼리고 문아의 기품이 없으며 자랑거리로 作詩를 청하기를 즐겼으며 학술담론이 드물었다는 것이다. 현실담론에 대한 기휘는 당시 청조 문인들의 보편적인 행위였을 것이고 문아의 기품이 없다거나 학술적 담론이 없다는 것은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丁若鏞의 경우 섭지선의 박식함은 毛奇齡에 못지 않고 정밀하게 연구한 점은 그보다 낫다고 높이 평가하였으며[33] 朴思浩 또한 섭지선을 “풍도가 맑고 깨끗하며 아담한 사람”이라면서 賀班 중에도 빠져 나와 만나보고 손을 붙잡고 정성스럽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34] 조선문인들을 반겼다고 한다. 학술적 담론이 없었다면 그의 박식함이 조선에 알려졌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단지 신재식의 필담에서 침묵을 일관했던 것은 한학과 송학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절충주의의 표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술적 담론보다는 교유시와 필담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것은 인간적 교류와 우정에 큰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

32) 姜時詠, 『輶軒續錄』道光10년 정월 9일, [林基中 編『燕行錄全集』,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권73, 191면.], “東卿今五十二, 鬚髮不白, 面貌円暢, 而別無文雅之氣…劉鳳浩何許人乎.文章筆翰盛名如雷, 在路已問知矣. 葉曰, 此人果有此名. 但使酒亢傲, 已爲被罪革職遷籍,亦有年矣。 余見其氣色, 全無顧藉之意。曾聞中朝朝士,亦有偏黨互相訾毁. 此必劉非所好, 故雖對遠人, 如是非斥,…此皆所好者阿之,而異己者斥之意也.”.

33) 丁若鏞, 『茶山詩文集』第二十一卷, <示二兒>, “翁覃溪經說, 略見一二, 頗似疏闊. 其徒葉志詵, 爲學亦主考據, 如太極圖, 易九圖, 皇極經世書, 五行說, 皆剖析明白. 蓋其淹博不在毛西河之下, 而精研則過之矣.”.

34) 朴思浩, 『心田稿』第二卷, <留館雜錄>, “葉志詵, …文學早成, 筆法典雅, 與我國人酬唱頗多. 余於太和殿庭見之, 淸脩雅飭人也. 上使癸酉書狀時, 曾有縞紵之誼. 今於賀班中, 抽身來見, 握手款語, 其二子亦有文學之名.”

www.kci.go.kr

4. 결론

연행록에 기재된 중국의 현실과 문인에 대한 평가를 중국사와 비교하여 보면, 중복되거나 일치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어긋날 정도로 상이한 경우도 존재한다. 중국문헌에서 찾아보기 힘든 문인 개인의 풍모라든지 성격, 에피소드 등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술된 연행록에서 상세하게 확인된다.

섭지선과 조선문인의 교유는 시문을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 보다 심화된 인간적인 교류였다. 그는 조선 문인들과 인간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우정이 국경을 넘어 가문으로 이어지면서 19세기 연행사들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한 인물이었다. 금석학에 관한 정보, 서적 구입을 비롯하여 의학정보 등, 일종의 지적인 창구 역할을 한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섭지선을 통해 조선에서 새로운 문화적 기류가 흐르게 되고 한중문인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중국에서 섭지선의 연구가 미진했던 것은 그동안 지속되었던 아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없지 않았을 터이다. 그동안 중국학계에서는 섭지선의 아들 葉名琛의 소극적인 대항의 표현으로 道學의 심취를 꼽았다. 군인의 급료가 시급한 시기, 섭명침은 십여 만의 인력을 동원하여 공금으로 觀音山에 長春仙館을 짓고 芳村에 小蓬仙館을 지었는데 그의 부친 葉志詵은 小蓬仙館에 신선 王子晉、呂純陽、李靑蓮[35]를 모시고 도학자들을 수십 명 모아 참배를 하여 백성들을 현혹시켰다고 한다. 물론, 조정에서 섭명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죄명을 붙인 것이 사실이다.[36] 실제로 연행록에 등장하는 섭명침은 소동파를 종주로 삼고 금석학과 서예에 능한 문인으로 평가되고 있지 도학자라는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섭지선의 도학적 지향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명이 없이 단지 소극적 대항으로 전쟁을 도발시킨 반역자로 지목된 아들 때문에 도학에 심취한 어리석은 도학자로 치부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아들에 대한 역사적 재규명이 중국학계에서 주목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부친의 도학적 지향에 대한 재규명

35) 張之洞,『張之洞全集』第四冊, 石家庄:河北人民出版社, 2008, 2538면.
36) 太平天國歷史博物館編 ,『吳煦檔案選編』第4輯, 南京:江蘇人民出版社, 1983, 191면.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앞으로 연행록과 조선문인의 기록에서의 섭지선의 새로운 자료발굴이 기대된다. 한편 가령 섭지선이 실로 도학자였다면 그의 도학적 지향이 조선학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도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www.kci.go.kr

참고문헌

金正喜,『阮堂全集』.(한국고전번역원,『한국문집총간 301』, 1934)
朴思浩,『心田稿』,1828.
徐慶淳,『夢經堂日史』, 1855, 국립 중앙 도서관 소장본.
申在植,『筆談』, 山東大學韓國文化研究所, 2004,
李尙迪,『恩誦堂集詩』.(한국고전번역원,『한국문집총간 312』, 1860.)
李裕元,『嘉梧藁略冊』.(한국고전번역원,『한국문집총간 316』)
丁若鏞,『與猶堂全書』.(한국고전번역원,『한국문집총간 281~286』, 1934~1938.)
趙秀三,『秋齋集』.(한국고전번역원,『한국문집총간 271』, 1939)

藤塚鄰,『추사 김정희 또다른 얼굴』,아카데미하우스, 1994.
후마 스스무,『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2008.
黃宇和,『兩廣總督葉名琛』,中華書局, 1984.
李玉安, 黃正雨,『中國藏書家通典』,中國國際文化出版社, 2005.
張之洞,『張之洞全集』第四冊, 河北人民出版社, 2008.

정 민,「19세기 동아시아의 慕蘇 열풍」,『韓國漢文學研究』49집, 397~430면.
천금매,「18~19세기 조청문인 교류척독 연구」,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1.
賴貴三,「考古證今, 山海崇深－韓儒 金正喜와 翁方綱、阮元의 서예, 경학교류」,『古典文學知識』175집, 鳳凰出版社, 2014, 74~82면.

www.kci.go.kr

Sub Ji-sun and Korean-Chinese Literary Scholars' Social Intercourse in the Early 19th Century

PIAO, XIANGLAN

Sub Ji-sun inherited the position of On Bang-gang who took over the important axis of the literary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19th century. Sub Ji-sun is known as the rare scholar who had an unusual connection with Korean literary scholars beyond national boundaries. During that time, Sub Dong-gyung's research just mentioned part of such literary from some China-related literary researches by Kim Jung-hui and Kim Yung-hui, without any concentrated contemplation. During the period of upheaval in EastAsia, by exploring the trace of scholar Sub Dong-gyung who desired intellectual interchange among countries beyond boundaries, the work of contemplating Sub Dong-gyung's core role is considered as the extremely important one to grasp the interchange situation and ideological trend between Korean and Chinese scholars. The communication between Sub Dong-gyung and Korean scholars was deep and humane communication instead of generally poetry and prose exchange. He is the one who had humane communication with Korean scholars and the one who had wide connection with emissaries in the 19th century. It's worthy of notice that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creating brightness such as some information about epigraphy and medical information which was inspired by purchasing books. It is undeniable that literary tide in Korea was made smooth and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s cholars was made more active via Sub Dong-gyung. In China,the research of Sub Dong-gyung is not entirely satisfactory because of the bad influence on those who were accused of provoking wars as traitors by way of negative resistance. From the memoir, it is also known that exploring Sub Dong-gyung's academic trend and trace is in accordance with Chinese literary scholars' position, fame and prestige which people don't focus on.

www.kci.go.kr

keywords: Sub Ji-sun, 19th Century, Korea, China, LiteraryScholars' Social Intercourse

접수일자: 2016. 3. 31.
심사기간: 2016. 3. 31.~2016. 5. 10.
게재결정: 2016. 5. 10.

www.kci.go.kr